

갈 곳 잃은 공무원·교사들...공시생들 한숨만 ‘푹푹’

올해 공무원 채용 75% 감소
정부 감축 방안·복직 늘어나
학령인구 급감 교원수도 줄어
임용 8명 합격...10명 대기중

한 때 최고의 직업으로 선망받던 공무원과 초등학교 교사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신규 채용인원이 급감하면서 시험에 합격해도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무한대기’해야 하는 현실에 시험을 준비하던 학원가에 찬 바람이 불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행정직 79명, 기술직 38명 등 117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467명을 채용한 지난해에 비해 74.9% 감소한 수치다.

특히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9급 일반행정직은 지난해 265명에서 올해 63명으로 76.2%가량 감소했다. 시설(건축) 직렬은 지난해 37명에서 3명으로 줄었고, 사회복지 직렬은 지난해 39명에서 10명으로 감소했다. 간호 직렬은 지난해 18명을 채용했지만 코로나19가 완화하면서 올해는 1명만 채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채용 축소는 현 정부의 공무원 감축 방침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복직 인원이 늘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 수가 준 영향도 더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 뿐만 아니라 5개 자치구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이 감소했다”며 “코로나19가 완화하면서 간호 직렬 채용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복직 인원이 늘고 퇴직 인원이 줄어든 탓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가 급감한 탓에 교사 채용도 급격히 줄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는 유치원 2명, 초등학교 6명 등 총 8명이다. 그러나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이중 단 한 명도 근무 학교를 배정받지 못했으며 지난해 합격자까지 총 10명이 발령 대기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수급 상황 고려해 탄력적으로 신규 교원을 임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시험을 준비하던 공시생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한다. 학원가에는 시험을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하며 찬 바람이 불고 있다.

3년째 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 김 모씨(29)는 “지난해 시험 점수가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데 올해 행정직렬 채용 인원이 났을 때 절망적이었다”며 “작년보다 시험을 잘 본다고 해도 채용인원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사실상 가망이 없다는 생각까지 든다. 이제라도 다른 직업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3년 동안 임용 시험을 준비해 온 양 모씨(26·여)는 “공립 신규 교원 정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같이 시험공부를 시작했던 분들 중 포기한 분들도 많고 전남이나 경기도 등 그나마 채용 인원이 많은 타지역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업무 부담과 낮은 임금, 연금에 대한 낮은 기대감 때문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5년간 공직 생활을 한 A씨는 “노후가 안정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꿈꿨지만 ‘절망통’이라는 말은 옛말이다”며 “물가상승률에 비해 임금은 적고 업무량은 많다. 연금보급률은 부담되는데 정작 연금수령액은 턱없이 적다. 게다가 요즘 세대들은 안정적인 직업보다도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더이상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휴대전화로 은행 간판 왜 찍지?” 예리한 눈썰미에 보이스포싱범 덜미

박영근 광주경찰청 경장



인하며 타인명의 주 민등록번호를 이용 해 무통장 송금을 하 려고 했으며, 종이 봉투 속에는 현금 문 치로 1,815만원이 들어있었다.

후가 중인 경찰관이 날카로운 눈썰미로 보이스포싱 수거책을 검거하고, 피해금 전 액을 회수했다.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 3기동 대 소속 박영근 경장(36·사진)은 후가 중인 지난 16일 오후 4시 40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은행 앞을 지나던 중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은행 간판을 촬영 하더니 현금 봉치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종 이봉투를 들고 은행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 다.

평소 보이스포싱 사건을 자주 접한 박 경 장은 보이스포싱 수거책이 편취한 돈을 ‘쫓 개기 송금’하려는 상황임을 직감했다.

이에 박 경장은 그 남성을 따라 은행 안으 로 들어가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예상대로 그 남성은 연신 휴대전화를 확

쳐 등을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범행을 시인 받았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사기범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 이스포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 이스포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 아 송금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장은 수사부서가 아닌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지만, 지난 1월에도 남구 봉선동 일대에서 교통 근무 중 휴게 시간에 보이 스포싱 수거책을 포착 검거해 피해금 1,100만 원을 회수한 바 있다.

/최환준 기자



지산딸기 출하 기원제
지난 18일 광주 북구 용강동 지산딸기 집하장에서 열린 지산딸기 작목회 한마음행사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 전광희 작목회장, 구상봉 북광주농협조합장 등이 출하 성공 기원제를 올리고 있다. /북구 제공

‘건조주의보’ 전남서 잇단 산불

낙엽 소각·입산자 실화 등

전남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주말 순천과 보성, 화순 등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19일 산림청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산림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순천시 별량면 야산에서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산불이 발생한 후 12시간여 만이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산림 15ha가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순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주민 A씨(67)가 주거지 인근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불길에 번진 것으로 보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산림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응급 복구를 진행할 방침이

다.

같은 날 오전 5시 50분께 보성군 회전면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헬기 4대, 진화 차량 9대, 대원 60명을 투입해 1시간 50여분 만인 오전 7시 40분께 주불을 진화했고, 오전 11시께 잔불 정리까지 마쳤다. 산림 당국은 농업 부산물 소각 중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화재 진화를 마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오후 3시 1분께 화순군 청풍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헬기 7대, 소방차 6대, 대원 141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당국은 산불 발생 3시간 29분 만인 오후 6시 30분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당국은 입산자 실화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가해자를 찾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민찬기 기자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 (녹색, 회색) 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방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 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습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품질보증

DREAM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CHEMICAL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